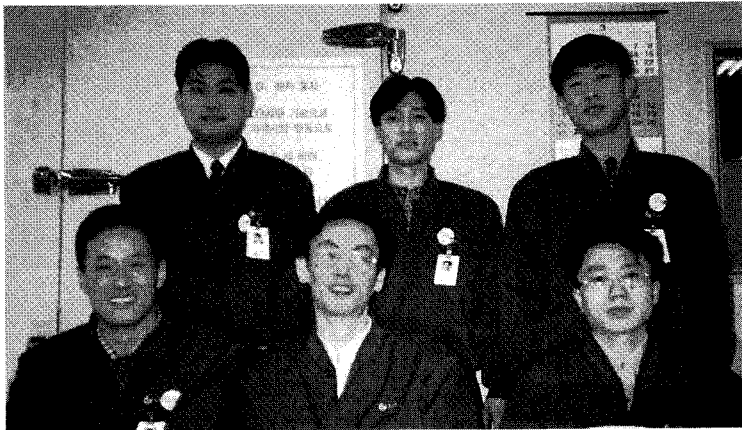




환경과 경제성 고려한 적정 포장설계 추구

을 9월 제5회 포장전시회 개최



▲ LG전자 품질센터 포장팀은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4년 CVA센터에서 품질센터로 변경

중량물 포장에 속하는 가전제품 포장은 식품 포장과는 전혀 색다른 특성을 갖는다. 식품포장이 화학이나 고분자를 토대로 한다면 가전제품 포장은 물리학이 기초가 된 것이다.

이렇듯 중량물포장, 특히 가전제품 포장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기술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완충재 사용감량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로 업계가 이중고를 겪어 왔는데 모범적으로 스티로폼을 감량화하고 환경완충재를 적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LG전자 품질센터의 포장팀을 방문했다.

영등포구 문래동 LG강서 빌딩 내에 있는 품질센터는 1982년 전사의 품질보증을 위한 제품시험 활동을 목적으로 당시 품질관리 본부 산하 제품품질시험소라는 명칭으로 신설되어 84년 시험설비를 구축하고 인원을 확보하여 제품시험소로서 명칭을 변경한 후 본격적인 시험업무를 시작했다.

그 후 85년 비로소 민간기업 제품평가 기관으로 도약한 제품시험연구소는 국제적 수준의 시험설비로 성능분야 온습도 및 유통분야, 포장분야, 소음·음향분야를 확보하고 시험·평가하는 업무를 실시해 나감과 동시에 포장분야도 시작했다.

91년 명칭을 CVA(Customer Value Assurance) 센터로 변경한데 이어 96년에 다시 품질센터로 변경하고 Mission/Role을 재정립하였으며 전사 차원의 품질혁신을 리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9개팀으로 구성된 품질센터의 포장팀은 처음 시작 당시 포장만을 전담으로 하는 인원 1명과 다른 업무를 하며 관리지원을 해주는 인원까지

모두 3명으로 시작됐다.

“제품이 출하되어 수송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가기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격시험기, 완충재시험기 등 기초시험기를 갖춘 상태였고 LG전자 전체 사업장별로 포장담당자가 협조를 해 주어 초창기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라고 밝히는 오창석 선임은 “더욱이 일본 마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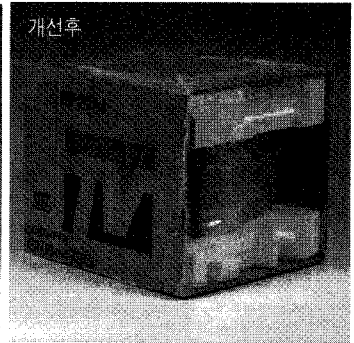
다 포장연구소를 표본으로 삼고 설비며 업무진행방식 기술적인 부분 등 전반적인 것은 컨설팅을 별도로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품질센터 포장팀은 본사 소속으로 전반적인 포장전략 수립을 통해 전사를 지원해 나가며 각 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공장내 포장팀에서 제품별 포장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포장팀 6명으로 구성

현재 6명으로 구성된 포장팀은 시험평가분야, 사업부의 포장개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개발분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전사의 포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을 지원하거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포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친환경 포장재 개발, 중장기 포장부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장에는 사업본부 산하에 포장설계실을 별도로 두고 품질센터의 지원을 토대로 제품에 적절한 포장설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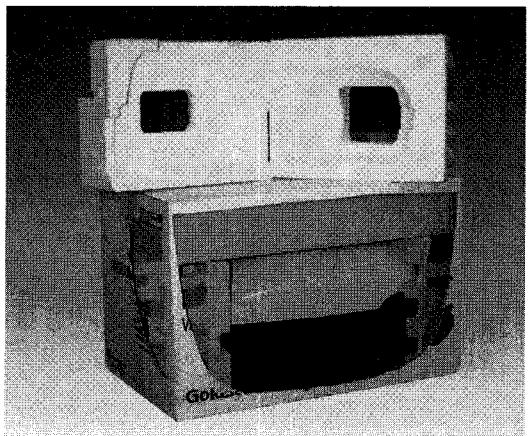
“사실 본사 포장팀과 각 사업장 포장팀간의 협조가 중요한데 특히 환경완충재를 적용시킴으로써 의견을 일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하는 담당자들은 원가를 고려하여 적용



▲LG는 TV 포장을 개선하여 포장작업 공정의 단순화 및 개봉의 용이성, TV포장의 신개념 적용을 통한 자원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을 꺼리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환경이란 부분은 어차피 대기업이 유도해 나가야하는 몫이므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LG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다짐했다.

LG의 경우 타가전사들과 비교해 볼 때 지속적으로 환경완충재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PC의 내수·수출 전제품에 환경완충재를 사용하고 있고 모니터는 14인치·15인치 내수전량에, 소형TV는 전량 대체재를 사용하며 그 외 제품에 대해서는 개발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나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노력중이라고 한다.



▲펄프몰드를 적용시켜 개선한 진공청소기 포장



▲LG는 최신 시험기기를 보유하고 정확한 시험을 통해 포장재를 적용시키고 있다.

지속적으로 환경인증제 적용 시켜

“LG는 코려페드와 펄프폴드 두가지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펄프폴드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대형제품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현재 LG가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적절한 상태로 설계하여 전혀 무리가 없도록 비드구조 등을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의 경우도 규제가 심하게 될 것으로 짐작했으나 실질적인 규제가 안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도 스티로폴의 폐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환경완충제 적용시와 스티로폴 사용에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심영수 선임은 밝혔다.

[표] 주요시험설비

진동·낙하(경사충격)시험기
충격시험기
복합환경(온습도+진동)가속시험 설비
수송환경조사용 계측설비
완충제 특성분석 시험설비
포장재료용 항온항습실
각종 포장재료(골판지 및 부자재)용 시험설비 등(압강, 링크러쉬, 인장강도, 마모도, 발수도, 흡수도 등)

LG 포장전시회 정기적으로 개최

LG포장담당자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환경과 함께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전사의 포장담당자들의 행사인 LG포장전시회는 그간 격년마다 개최되며 포장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올해 9월 행사로 5회째를 맞는다.

전사 포장담당자들이 사업장별로 설계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 이 전시회는 지난 94년 개최된 이후 3년만에 열리는데 지난 94년에는 환경을 주제로 한 제품들이 주를 이뤘고 이번에는 환경과 함께 경제성을 주제로 삼고 있다. LG는 가전제품의 포장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아 격년마다 개최하는데 무리를 느끼고 앞으로 3년마다 행사를 주관할 것이라고 한다.

타사와 달리 LG는 1986년 전사포장기술 정보교환 활동을 위해 전사포장소위원회를 발족하여 89년 전문성을 부여한 전사포장전문위원회로 개칭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포장전문위원회의 구성은 각 사업장의 포장담당자들과 품질센터의 포장팀으로 구성되어 LG전자제품의 포장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포장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LG는 전문포장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섭렵할 수 있도록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대기업으로서 기업의 이익만이 아닌 환경친화를 추구하여 업계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이선하기자

업체탐방문의
편지실 780-9782